

5/8/16

설교 제목: 나아만과 게하시의 뒤바뀐 인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열왕기하 5:15-27

(왕하 5: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왕하 5: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절관주 마 10:8, 행 8:20

(왕하 5: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절관주** 출 20:24

(왕하 5: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절관주 왕하 7:2

(왕하 5: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왕하 5: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왕하 5:21)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왕하 5:22)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왕하 5:23)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왕하 5:24)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왕하 5:25)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절관주** 겔 33:31
 (왕하 5:26)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나
 (왕하 5: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난 주에 나아만 장관이 나병을 고침 받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본문은 연이어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천형과 다름없는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 받습니다.

나아만 장관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관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 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도 지난 번과 달리 나아만 장관을 영접합니다.

나아만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물을
 거절합니다.

(왕하 5: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엘리사는 전에 병을 고쳐 주고 예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엘리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나병에서 낫고자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나병이 나으면 아람으로 돌아가 이전과 같이 자신들의 신인 림몬 신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관의 나병을 낫게 해 주시되 그것을 계기로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관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이 병을 고치기 위해 처음 자신의 집에 찾아 왔을 때 영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을 영접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병 나음을 받았다면 나아만 장관은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 보다는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그를 믿고 의지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고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아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나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나왔어도 또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는 나아만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 등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은 바알이나 림몬 등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 아람에서 섬기는 림몬 신과 같이 생각하여 림몬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관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 철두 철미하게 신과 인간과의 거래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러면 신은 인간을 보호해 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이십니다.

나아만 장관이 나병을 고침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 장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누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관은 이스라엘의 흠을 싣고 아람에 돌아가 그 흠 위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아만 장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가 했더니 갑자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해 이야기를 연장해 나아갑니다.

(왕하 5: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왕하 5:21)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음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왕하 5:22)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자신이 나서서 나아만 장관으로부터 그가 예물로 가져온 것들을 중 일부라도 받아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깁니다.

게하시가 이런 자신의 행동이 아주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관을 쫓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하 5:22)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게하시가 어려운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하 5:24)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의 행동으로 보아 형편이 어려운 선지 생도를 돕기 위해서나 엘리사와 딸린 식솔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탐심이 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이 기회에 떡고물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이 솔직한 게하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 나아만 장관에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사례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좋아서 준다고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 엘리사가
그 제안을 거절하여 이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리다니요?

솔직히 나아만 장관 입장에서도 천형과 같은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돈도 많겠다 그 정도는
할만 하지요.

에라, 엘리사가 안 챙기면 나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쉽게 오나? 일생에 한번
올까말까한 절호의 기회인데.....

게하시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나아만 장관을 뒤 쫓아가 주인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는데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관은 흔쾌히 게하시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은 한 달란트를
요청했는데 두 달란트를 건내 줍니다.

은 한 달란트는 3000 세겔로 34kg 이며 일반 노동자들의 6000 일 임금 그러니까 20 년
연봉입니다.

그러므로 게하시가 받은 은 두 달란트는 어머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된 게하시의 가슴은 마구 망방이질 했을 것입니다.

게하시의 이것들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셔서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딜 다녀 오느냐고 묻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고 게하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엘리사가 은과 옷을 왜 받았느냐고 꾸짖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난데없이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들을 언급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왕하 5:26)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나

엘리사는 게하시가 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겠다고 마음 먹은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하니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왕하 5: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과 게하시의 운명이 서로 뒤바뀐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깨끗이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고 온전했던 게하시의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관은 단지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게하시의 인생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 되어 구원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고, 자식도 기를 수 있고, 사람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크고 비싼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게하시처럼 참으로 바보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